

오순절 후 네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4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4년 6월 16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66 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통일 485)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24 번 시편 46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한경준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막(Mark) 4:26-34, 고후(2 Cor.) 5:6-10	이복희 집사
찬 양 Anthem	“나의 자랑 오직 십자가”	찬양대
설 교 Sermon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Does Not Know How)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여호와와의 유월절”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Closing Hymn	438 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통일 495)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더 이상은 얽매이기 쉬운 죄의 유혹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기적인 욕심과 그릇된 욕망을 좇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통 죄악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벧전 4:11, 미 68)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막 4:26-27)

“He also said, ‘This is what the kingdom of God is like. A man scatters seed on the ground. Night and day, whether he sleeps or gets up, the seed sprouts and grows, though he does not know how.’” (Mark 4:26-27)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6/16 (주일)	6/17 (월)	6/18 (화)	6/19 (수)	6/20 (목)	6/21 (금)	6/22 (토)
	신22	신23	신24	신25	신26	신27:1-28:19	신28:20-68
본문	시110,111	시112,113	시114,115	시116	시117,118	시119:1-24	시119:25-48
	사49	사50	사51	사52	사53	사54	사55
	계19	계20	계21	계22	마1	마2	마3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6/19수 오후7:30)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삿26-15)
토요 새벽기도회(6/22토 오전6:30)	“옴조리며 생각하고 주를 사모하나이다”(사143:1-12)

지난 주일 (6/9) 말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막 3:20-35, 고후 4:13-5:1)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소서 때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단”(참고, 막25)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은 1)죄로부터의 구원과 2)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다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막3:29)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며? 또한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께서 (처음)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도 “성령에 이끌리신 바” 되셨으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훼방)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며,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모든 죄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교만”에서 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우리는 (혹여라도)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교만한 삶” 곧 은연 중에라도 “성령을 모독(훼방)하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참된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설/교/ 메/모